

2017년 9월 시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9.29(금)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균형, 객관성 제고해야

- 식약처에서 시판 생리대를 평가한 결과 유해하지 않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그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의 연구결과를 '명품리포트 맥'과 주요뉴스에서 계속 방송하여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화학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보도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수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도할 경우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되므로 생필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보도는 국내외 허용기준 비교, 기업측 의견 등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박동민 위원)
-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겨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보도는 해당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이들 기업의 입장도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박동민 위원)

▲ 보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의견

- 뉴스 편성 기본방향 및 기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당면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비중 있게 배정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방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예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원자력 공론화, 갈등해소, 신명나는 기업분위기 조성,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국가안보 등)(김상선 위원)
-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도 중진기자들이 나와서 여러 주제에 대해 대담을 하든지 아니면 화제 인물을 인터뷰를 하던지 하는 새로운 포맷을 고민해봤으면 함(주철환 위원)
- 북핵위기를 다루는데, 중국과 미국의 현지 취재가 더 보도에 반영되면 좋겠음 해외뉴스에 강한 연합의 강점이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이재경 위원)

▲ 자료화면, 자막 및 부적절 표현 주의

- 마광수 교수 자살을 보도하면서 현장까지 사진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지 의문임(김용직 위원)
- 뉴스를 보면 가끔 서울전경을 뒷배경으로 쓸 때가 있는데 전국에서 시청하는 뉴스인 만큼 뒷배경 등도 전국 주요지역을 돌아가면서 뒷배경으로 보여주는 방

안도 검토해봤으면 함(주철환 위원)

- '차담회'와 같은 신조어를 자막에 사용할 때, 이에 익숙하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예: 청와대 만찬 전 차담회)(김상선 위원)
- 자막이 보기에 깔끔한데 말 자막 크기가 좀 작은 느낌이 있음.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고려할 때 말 자막을 다소 키우는 건 어떤지 제안하고 싶음(주철환 위원)
- 니코틴 살인 사건 재판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1심 판결이 난 것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니코틴 살인 무기징역" 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니코틴 살인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음(김용직 위원)
- 제목을 달면서 '매티스 핵무기 위치는 안중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안중요라는 표현은 아무리 줄이는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부적절해 보임. 적어도 뛰어 쓰기라도 했어야함(김용직 위원)
- 큰 부분은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세계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자막 뉴스로 흐르는데 미국의 국무부를 국무부만 적는다거나 일본의 외무상을 나라를 적지 않고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이왕이면 정확한 표현을 권함(박정숙 위원)

▲ 기자 전문성, 신뢰성 제고 필요

- 최근 외교·안보 등 긴급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 전문분야의 베테랑 기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의 풍부한 전문기자를 활용이 필요함(타 매체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모(母)언론사의 전문기자 출연하여 뉴스 신뢰성 제고).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패널로 참여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신현택 부위원장)
- 이상 기후와 관련하여 기상 전문기자가 나와 설명하는 것은 좋아 보임. 다만, 허리케인 보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 폭우 관련 보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음(김용직 위원)

▲ 긍정 및 의견

- 9월 4일 6차 핵실험 뉴스에 연합뉴스 기자 (문규현 통일외교기자)가 출연하여 배경·분석·전망 등 심층보도를 해 뉴스 신뢰성을 제고함(신현택 부위원장)
- 자막이 타방송과 유사한데 큰 글씨 크기가 더 큰 듯하고 주황색과 검정색이 조화되어 가독성이 더 높아 보임(정현주 위원)
- 화면 하단에 속보 뉴스 자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방식이 타방송보다 더 많은 뉴스를 읽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함. 작은 것이지만 보도채널 시청률 1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정현주 위원)
- 최근 들어 기자들 얼굴이 나오는 스탠드업이 많이 늘고 있음. 시청자 입장에서 기사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게 느껴짐(주철환 위원)

- 대체로 뉴스가 많이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 그래서 작은 흠집은 잡아내기가 어려움(이재경 위원)
- 기온이 낮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음. 날씨보도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비중있게 제공해 주었으면 함(박동민 위원)
-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뉴스 전달환경으로 평가됨. 예를 들면 지구촌 천재지변이 유난히 많은 이번 달에 보도시 전화나 제보화면 또는 특파원 리포트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 콘텐츠의 오디오레벨의 밸런스가 좋아 안정감 있게 전달되었음(박정숙 위원)
- 앵커들의 전달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 뉴스에 따라 절제된 희로애락이 화면에 연출되었으면 다양한 앵글로 뉴스전달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연출 노력이 보였으며 조명의 부드러움도 이런 효과를 배가했음 같은 진행자인데도 진보된 느낌을 주었음(박정숙 위원)
- . (끝)